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사회이동성 인식의 구조와 사회적 태도에 대한 함의: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인식의 비교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FS 페이퍼 2026-01 (Vol.2)

사회이동성 인식의 구조와 사회적태도에 대한 함의

정인관^a
2026. 7

a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nkwan82@ssu.ac.kr)

인용 정보

정인관 (2026). 「사회이동성 인식의 구조와 사회적 태도에 대한 함의」.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IFS 워킹페이퍼 No.2026-01, Vol. 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서론	06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08
2.1. 객관적 이동성에서 주관적 이동성 인식으로	08
2.2. 이동성 인식의 개념적 구분	09
2.3. 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태도	10
2.4. 연구질문	11
3. 자료 및 분석 방법	12
3.1. 자료	12
3.2. 변수	12
3.3. 분석방법	13
4. 분석 결과	14
4.1. 이동성 인식 분포	14
4.2. 이동성 인식의 집단별 차이	14
4.3. 이동성 인식의 결정요인	16
4.4. 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태도	17
4.5.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 능력주의 태도의 경우	20
4.6. 분석의 종합	20
5. 결론 및 논의	22
참고문헌	24

초록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세대내(intra-generational) 이동성 인식과 세대간(inter-generational) 이동성 인식으로 구분하고, 두 인식의 분포와 결정요인, 그리고 사회적 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기획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2026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세대간 이동성보다 세대내 이동성을 상대적으로 더 낙관한다. 둘째, 두 인식의 결정요인 구조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셋째, 두 인식은 사회적 태도와 상이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세대내 이동성 인식은 고소득자 증세 반대 및 능력주의 거부와 연결되는 반면, 세대간 이동성 인식은 증세 찬성 및 사회적 소수자 포용과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성 인식을 단일 차원으로 취급해 온 기존 연구가 서로 반대 방향의 이질적 효과를 상쇄시켜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동성 담론 설계에서 세대내/세대간 구분이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주제어: 사회이동성 인식, 세대내 이동, 세대간 이동, POUM 가설, 재분배 태도, 능력주의, 관용

Abstract

This study disaggregates subjective mobility perceptions into two distinct judgments — whether one can move up within one’s own lifetime (intra-generational) and whether the next generation can (inter-generational) — and examines their distributions, determinants, and attitudinal consequences. Drawing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collected in 2026, we find that Koreans are notably more optimistic about intra-generational than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that the two perceptions are shaped by partially different factors. More importantly, they pull social attitudes in opposite directions: intra-generational optimism predicts opposition to taxing high earners and skepticism toward meritocratic critique, whereas inter-generational optimism predicts support for tax increases and greater inclusion of social minorities. Treating mobility perceptions as a single dimension, as most prior work has done, thus risks masking real relationships by letting these countervailing effects cancel out. We conclude by discussing what the intra-/inter-generational distinction implies for mobility discourse aimed at social integration.

Keywords: Perceived Social Mobility; Intragenerational Mobility; Intergenerational Mobility; Prospect of Upward Mobility (POUM); Redistributive Preferences; Meritocratic Beliefs; Social Tolerance

1. 서론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겨가는 일로,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 등으로 구분된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즉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출신 배경의 제약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층 연구의 중심 주제였으며(Blau & Duncan, 1967; Erikson & Goldthorpe, 1992),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체제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핵심적 준거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을 둘러싼 담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뚜렷한 변화를 겪어 왔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이 상징하듯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이동성 둔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회 격차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저 계급론'으로 대표되는 계층 재생산 인식이 대중화되면서 출신 배경의 중요성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의 비관화가 객관적 이동성 추세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의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과 교육 기회 불평등이 통념만큼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일관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계봉오·황선재, 2016; 정인관 외, 2020; 최성수·이수빈, 2018). 객관적 이동성과 주관적 이동성 인식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이동성 '인식'이 객관적 구조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사실임을 시사한다.

이동성 인식이 독자적 연구 대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정치·사회·경제적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객관적 이동성 그 자체라기보다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이다(Evans & Kelley, 2004; Kelley & Evans, 1995; Kelley & Kelley, 2009).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미래의 세금 부담을 예상하여 재분배에 반대한다는 POUM(prospect of upward mobility) 가설(Benabou & Ok, 2001), 이동성에 대한 낙관이 현재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과 연결된다는 연구(Davidai & Gilovich, 2015; Shariff et al., 2016), 낮은 이동성 인식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약한 지지와 연결된다는 연구(Day & Fiske, 2017), 그리고 이동성 인식과 재분배 선호의 관계를 국가 간 비교로 확인

한 연구(Alesina et al., 2018) 등은 모두 이동성 인식이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이동성 인식 연구는 대체로 인식을 단일 차원의 지표로 취급해 왔다. 객관적 이동성 연구에서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의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범주였던 것(Lipset & Bendix, 1959)과 대조적으로, 인식 연구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자식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하나의 지수로 합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두 인식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판단이며, 따라서 형성되는 경로도 태도적 귀결도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세대내 이동성 인식이 개인화된 미래 기대와 능력주의적 자기 효능감에 가깝다면, 세대간 이동성 인식은 교육·제도·기회구조 전반에 대한 집합적이고 구조적인 판단에 가깝다. 만약 두 인식이 사회적 태도와 반대 방향으로 결합한다면, 이를 단일 지수로 묶는 관행은 이질적 효과들을 상쇄시켜 실재하는 관계를 은폐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26년 실시된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인식의 수준은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가, 두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그리고 두 인식은 빈부갈등 인식, 증세 태도, 능력주의 태도, 사회적 소수자 포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 작업은 이동성 인식의 2차원 구조를 개념화하는 이론적 시도인 동시에, 대규모 전국 표본에서 두 인식의 결정요인과 태도적 귀결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확인하는 경험적 시도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이동성 담론이 어느 차원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는 정책적 질문과도 닿아 있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객관적 이동성에서 주관적 이동성 인식으로

사회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Blau and Duncan(1967)의 지위획득 모형과 사회이동표 분석의 전통 위에서 발전해 왔다. 미국의 직업구조 분석(Featherman & Hauser, 1978), 산업사회 계급이동의 국가 간 비교(Breen, 2004; Erikson & Goldthorpe, 1992) 등 고전적 연구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직업·계급 위치를 연결하는 객관적 이동 체제의 규명에 집중하였다. 한국에서도 세대간 계급이동, 교육이동, 소득이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그 종합적 검토는 통념적 비관론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세대간 이동성의 극적인 하락을 지지하는 증거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계봉오·황선재, 2016; 정인관 외, 2020; 최성수·이수빈, 2018).

그러나 객관적 이동성과 사람들이 지각하는 이동성은 별개의 현상이다. 미국의 사례는 이 괴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들이 미국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에 상당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상향이동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제약됨을 확인한 반면(Chetty et al., 2014), 일반 시민들은 자국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Davidai & Gilovich, 2015). Alesina et al.(2018)는 미국인이 이동성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유럽인은 오히려 과소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재분배 선호와 체계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5개국 비교를 통해 보여주었다. 결국 이동성 인식은 객관적 구조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개인의 위치와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고 해석된 인식이며, 동일한 구조 아래에서도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이념, 계층의식 등이 이동성 인식의 체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성 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연령·기간·코호트 효과의 분해는 한국인의 상향이동 의식이 최근 시기 및 젊은 코호트에서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며(이왕원 외, 2016), 사회조사 자료 분석은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이 시기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한다(이용관, 2018). 박선경·이내영(2019)은 부모 세대 대비 본인의 계층 위치에 대한 회고적 인식

과 자녀 세대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구분하여 그 결정요인이 상이함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노동패널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이 계층이동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었다(김형연 외, 2025).

이동성 '인식'이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예측력에 있다. 주관적 계층·이동 인식 연구의 전통은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 갈등 인식, 체제 정당화가 객관적 위치보다 주관적 위치 인식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설명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Evans & Kelley, 2004; Kelley & Evans, 1995). 국제사회조사(ISSP) 자료를 이용한 30개국 비교 연구는 주관적 이동 경험의 분포와 상관구조가 국가 간에 체계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주며(Kelley & Kelley, 2009), 최근의 유럽 비교 연구는 이동성 전망에 대한 고려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고하였고(Drishti et al., 2023), 주관적 이동 인식은 객관적 이동 궤적과는 독립적으로 건강 및 웰빙과 연관됨이 보고된 바 있다(Präg & Gugushvili, 2021). 이동성 인식의 귀결은 태도와 웰빙을 넘어 정치 행동으로도 확장된다. 부모 세대 대비 하향이동을 겪었다는 지각은 유럽 8개국에서 포퓰리즘 태도를 일관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Liñeira & Rico, 2025), 한국에서도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인식이 유권자의 계층 지위에 따라 투표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를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장승진·장한솔, 2020). 국내 청년층 연구 역시 세대간·세대내 계층이동 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연관되며 그 일부가 사회참여를 경유함을 보여준다(최아영, 2022). OECD(2018) 역시 '고장난 사회적 엘리베이터(broken social elevator)'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 결속과 제도 신뢰를 잠식하는 위험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2.2. 이동성 인식의 개념적 구분

객관적 이동성 연구에서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의 구분은 Lipset and Bendix(1959) 이래 기본적인 분석 범주였다. 그러나 이동성 '인식' 연구에서 이 구분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 중에는 본인의 이동에 대한 인식과 자녀 세대의 이동 전망을 구분한 시도(박선경·이내영, 2019)나 세대내·세대간 이동 인식을 병렬적으로 검토한 시도(최아영, 2022)가 있으나, 두 차원이 사회적 태도와 어떻게 상이하게 결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대비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두 종류의 인식이 판단의 대상, 준거, 그리고 심리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세대내 이동성 인식, 즉 '내가(혹은 일반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 자신의 생애 지평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화된 미래 기대에 가깝다. 이는 노력-보상 연계에 대한 믿음, 즉 능력주의적 자기 효능감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자신의 노동시장 경험, 경력 전망, 축적된 자원에 대한 평가를 준거로

삼는다. 반면 세대간 이동성 인식, 즉 '자식 세대의 지위가 자신의 세대보다 높아질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판단은 교육 제도, 노동시장 구조, 자산 축적과 상속, 기회구조 전반에 대한 집합적이고 구조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및 제도적 신뢰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전자가 '나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라면 후자는 '이 사회의 개방성'에 대한 질문이며,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자신의 경력 상승은 낙관하면서도 자녀 세대의 구조적 기회는 비관하는 조합, 혹은 그 반대의 조합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경험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우선 두 인식의 형성 요인이 달라야 한다. 예컨대 구조적 판단으로서의 세대간 인식은 교육수준이나 자산처럼 재생산 기제를 관찰·경험하게 하는 위치 변수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인식이 사회적 태도와 결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이하의 분석은 이 두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2.3. 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태도

이동성 인식의 태도적 결과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POUM 가설이다. Benabou and Ok(2001)은 현재 소득이 평균 이하인 사람이라도 장래의 상향이동을 기대한다면 미래의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여 재분배에 반대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POUM 가설의 핵심은 재분배 반대를 추동하는 것이 '미래의 자기 위치'에 대한 기대라는 점이다. 이 논리를 엄밀히 따르면, POUM 효과는 자기 자신의 생애 내 전망, 즉 세대 내 이동성 인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자녀 세대의 구조적 기회에 대한 판단인 세대간 인식은 '미래의 나'의 세금 부담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예상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오히려 세대간 이동성을 낙관하는 사람은 사회의 개방성과 제도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공적 개입에 대한 태도는 상이한 경로를 따를 수 있다. 이동성 인식을 단일 지표로 측정할 경우 이 두 경로를 구분할 수 없다.

이동성 인식은 불평등의 수용 및 정당화와도 연결된다.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용을 높이며(Shariff et al., 2016), 이동성 인식이 높을수록 현재의 시스템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Day & Fiske, 2017). 한편 Mijs(2021)는 소득 불평등의 증대가 역설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의 강화와 동행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불평등이 능력주의 서사를 통해 '견딜 만한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헌들은 대체로 이동성 낙관이 능력주의 및 불평등 정당화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이 관계의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다. 무작위 정보 개입을 통해

이동성 인식을 유의하게 비관적으로 변화시켜도 분배 선호와 재분배 지지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독일의 실험 결과(Fehr et al., 2024)는, 관찰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식-태도 연관이 곧바로 인과 효과로 해석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이동성 인식은 계층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을 완화하고, 구조적 기회의 개방성에 대한 믿음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포용적·친사회적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계층이동 인식이 높은 조건에서 하층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며 그 기제로 체제 정당화 신념이 작동한다는 실험 연구(Rao et al., 2022)와,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기부 경험과 기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문예진·이상민, 2017)는 이동성 인식이 사회성과 맺는 긍정적 관계를 시사한다.

2.4. 연구질문

이상의 논의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1: 세대간/세대내 이동성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념, 주관적 계층의식 등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가?

연구질문 2: 세대간/세대내 이동성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두 인식의 결정요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질문 3: 두 이동성 인식은 빈부갈등 인식, 고소득자 증세 태도, 능력주의 태도, 사회적 소수자 포용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는가?

3. 자료 및 분석 방법

3.1. 자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기획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2026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 남녀 각각 1,5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정치 성향과 투표 행태, 정책 태도, 민주주의 인식, 갈등·통합 인식, 기관 신뢰, 계층·경제상황 인식 등 광범위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3.2. 변수

핵심 독립변수인 사회이동성 인식은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세대내 이동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간 이동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 5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분석에서는 값이 클수록 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도록 역코딩하였다(1=매우 낮다 ~ 5=매우 높다).

종속변수는 네 가지 사회적 태도이다. 첫째, 빈부갈등 인식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으로, 값이 클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도록 코딩하였다. 둘째, 증세 태도는 "고소득자들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한 4점 척도 문항으로, 값이 클수록 증세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셋째, 능력주의 태도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격차와 불평등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4점 척도 문항으로, 값이 클수록 능력주의(및 그에 따른 불평등 수용)에 찬성함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 포용은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이동 시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항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한 문항(각 5점 척도)을 값이 클수록 포용적하도록 역코딩한 뒤 그 평균값으로 지수화

했다.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대(10세 단위), 교육수준(고졸 이하/대학 재학·졸업/대학원 재학·졸업), 거주지역, 가구소득(13구간), 순자산(12구간), 주거형태, 주관적 계층의식(5점), 이념 성향(0~10점, 자기평가에 기반한 진보/중도/보수 3분류), 기관신뢰(국회, 대통령, 행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0~10점 신뢰도의 평균)를 사용한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3,0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세대내 이동성 인식 (1~5)	3.02	0.97	1	5
세대간 이동성 인식 (1~5)	2.84	0.98	1	5
빈부갈등 인식 (1~5, 높을수록 심각)	3.62	0.89	1	5
고소득자 증세 반대 (1~4, 높을수록 반대)	2.05	0.79	1	4
능력주의 수용 (1~4, 높을수록 찬성)	2.11	0.66	1	4
사회적 소수자 포용 (1~5, 높을수록 포용)	2.41	0.96	1	5
연령	51.37	16.00	19	89
여성 (=1)	0.50	—	0	1
가구소득 (13구간)	5.49	2.83	1	13
순자산 (12구간)	4.74	3.51	1	12
주관적 계층의식 (1=최하층~5=최상층)	2.53	0.80	1	5
이념 자기평가 (0=매우 진보~10=매우 보수)	5.02	1.95	0	10
기관신뢰 (8개 기관 평균, 0~10)	4.35	1.81	0	10

주: 빈부갈등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 포용은 값이 클수록 각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포용적이 되도록 역코딩한 것임

3.3. 분석방법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집단별 차이(연구질문 1)는 집단별 평균 비교와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검증한다. 둘째, 이동성 인식의 결정요인(연구질문 2)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두 인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다. 셋째, 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태도의 관계(연구질문 3)는 종속변수의 척도에 따라 순서형 로짓(빈부갈등 인식, 증세 태도, 능력주의 태도)과 OLS 회귀분석(소수자 포용 지수)을 사용한다. 각 종속변수에 대해 세대내 인식만 투입한 모형(모형 1), 세대간 인식만 투입한 모형(모형 2), 두 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모형 3)을 추정함으로써, 두 인식의 총효과와 상호 통제 후의 순효과를 구분한다. 두 인식은 정(+)의 상관을 가지므로, 모형 3의 결과는 한 차원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차원이 갖는 독자적 연관을 보여준다. 순서형 로짓 결과는 승산비로 보고하며, 그 수치가 1보다 작으면 부(-)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4. 분석 결과

4.1. 이동성 인식 분포

<표 2>는 두 이동성 인식의 분포를 보여준다. 세대내 이동성에 대해 '다소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1.4%로, 세대간 이동성에 대한 낙관적 응답(25.0%)보다 높았다. 반대로 비관 응답('매우 낮다'+ '다소 낮다') 비율은 세대내 26.6%, 세대간 34.0%로 세대간 쪽이 뚜렷이 높았다. 평균값 역시 세대내 3.02, 세대간 2.84로,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한 생애 내 이동보다 자녀 세대의 구조적 상승 가능성을 더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담론적 비관이 특히 세대간 재생산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념과 부합하는 결과이며, 두 인식이 경험적으로도 분리될 수 있는 차원임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표 2> 세대내·세대간 사회이동성 인식의 분포

응답 범주	세대내 사회이동	세대간 사회이동
매우 낮다	7.6%	9.9%
다소 낮다	19.0%	24.1%
보통이다	41.9%	41.0%
다소 높다	26.9%	21.8%
매우 높다	4.5%	3.2%
평균 (표준편차)	3.02 (0.97)	2.84 (0.98)

4.2. 이동성 인식의 집단별 차이

<표 3>과 <표 4>는 각각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인식의 집단별 평균 차이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성별 차이는 두 차원 모두에서 유의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세대내, 세대간 모두에서 이동성을 더 낙관하고 있었다. 연령 효과와 관련, 세대내 인식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세대간 이동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낙관적인 경향이 뚜렷하며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교육수준별 차이는 두 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대간 인식에서는 고학력일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념 집단 간 차이는 두 차원 모두 유의한데 그 양상은 다르다. 세대내 인식에서는 진보가 가장 낙관적이고 중도가 가장 비관적인 반면, 세대간 인식에서는 진보가 낙관적이고 중도와 보수가 유사하게 비관적이다. 가장 큰 차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나타난다. 상층으로 갈수록 두 차원 모두에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동성 인식이 계층에 따라 구조화된 인식임을 보여준다.

<표 3> 사회이동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세대내

구분	집단별 평균값	차이 검정
성별	남성(3.07), 여성(2.96)	**
연령대(10년 단위)	20대(2.98), 30대(2.97), 40대(2.93), 50대(3.04), 60대(3.07), 70대 이상(3.09)	n.s
교육수준	고졸 이하(3.02), 대학 재학/졸업(3.01), 대학원(3.04)	n.s
이념	진보(3.12), 중도(2.93), 보수(3.02)	***
주관적 계층	하층(2.82), 중간층(3.17), 상층(3.41)	**

주: t-검정(성별) 및 일원분산분석(그 외). ** $p < .01$, *** $p < .001$.

<표 4> 사회이동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세대간

구분	집단별 평균값	차이 검정
성별	남성(2.89), 여성(2.79)	**
연령대(10년 단위)	20대(2.77), 30대(2.77), 40대(2.74), 50대(2.90), 60대(2.92), 70대 이상(2.94)	***
교육수준	고졸 이하(2.91), 대학 재학/졸업(2.83), 대학원(2.78)	n.s
이념	진보(2.99), 중도(2.78), 보수(2.77)	***
주관적 계층	하층(2.68), 중간층(2.98), 상층(3.10)	***

주: t-검정(성별) 및 일원분산분석(그 외). ** $p < .01$, *** $p < .001$.

4.3. 이동성 인식의 결정요인

<표5>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자원, 이념, 신뢰, 계층의식을 동시에 투입한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를 승산비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두 인식의 결정요인 구조가 공유하는 부분과 갈라지는 부분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공통 요인을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차원 모두에서 이동성을 비관하며, 고연령층은 두 차원 모두에서 낙관적이고 그 효과는 세대간 인식에 있어 더 강했다. 기관신뢰와 주관적 계층의식은 두 차원 모두에서 정(+)의 예측 요인인데, 특히 기관신뢰의 효과가 세대간 인식에서 더 큰 것은, 세대간 이동성 판단이 제도와 기회구조에 대한 신뢰 평가와 결합되어 있다는 개념적 예상과 부합한다.

두 인식이 갈라지는 지점도 명확하다. 먼저 교육수준의 효과는 세대간 인식에서 뚜렷했다. 고졸 이하 대비 대학 재학/졸업과 대학원 재학/졸업은 세대간 이동성을 유의하게 비관하며, 세대내 인식에서는 대학원 학력의 효과만 유의했다. 순자산 역시 세대간 인식에 대해서만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념의 효과도 비대칭적이어서, 진보 대비 중도는 두 차원 모두에서 비관적이지만 보수의 유의한 비관은 세대간 인식에서만 나타났다. 이 밖에 거주지역 중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는 서울 대비 세대내 이동성을 더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이동성 인식의 결정요인: 순서형 로짓 분석 (승산비)

변수	세대내 사회이동	세대간 사회이동
여성 (기준: 남성)	.812**	.801***
대학 재학/졸업 (기준: 고졸 이하)		.785**
대학원 재학/졸업 (기준: 고졸 이하)	.777*	.628***
50~59세 (기준: 19~29세)		1.409*
60~69세 (기준: 19~29세)	1.331*	1.676***
70세 이상 (기준: 19~29세)	1.561**	1.954***
순자산		.942***
중도 (기준: 진보)	.819*	.832*
보수 (기준: 진보)		.810**
기관신뢰	1.218***	1.314***
주관적 계층의식	1.753***	1.689***
부울경 거주 (기준: 서울)	1.339*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표에 포함. 모형에는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 이념, 기관신뢰,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소득, 순자산, 주거형태가 투입됨.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해석을 낳는다. 고학력자의 세대간 비관은 학력 집단 내부의 치열한 경쟁과 학력 인플레이션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동성의 한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식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자녀 세대의 지위 재생산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연령 효과는 각 세대가 자신의 생애 경험을 준거들로 삼아 이동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도성장기의 상향이동을 경험한 고연령층은 낙관적 준거를, 저성장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은 비관적 준거를 갖는다. 이는 한국인의 상향이동 의식이 연령·시기·코호트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젊은 코호트에서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선행 분석과도 정합적이다(이왕원 외, 2016). 이념 효과와 관련해서는, 진보층이 '사회가 바뀌면 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규범적 낙관을 투영하는 반면, 보수층은 현재의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세대간 이동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순자산의 효과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세대간 이동성을 비관한다는 결과는, 자산 보유자들이 현재의 계층구조가 자산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실을 스스로 경험하거나 관찰하면서 역설적으로 세대간 이동의 어려움을 더 잘 인지하게 됨을 시사한다. 반면 세대내 이동에 대해서는 자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노력'에 대한 믿음이 자산 위치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상층이 자녀 세대의 이동 가능성을 오히려 비관하는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관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도 맥을 같이 한다(박선경·이내영, 2019). 정리하면 세대간 이동성 인식은 재생산 기제를 관찰하게 하는 위치 변수(학력, 자산)와 구조 평가 변수(이념, 신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세대내 인식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는 두 인식의 개념적 구분(개인화된 기대 대 구조적 판단)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4.4. 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태도

연구질문 3에 답하기 위해, 네 가지 사회적 태도 각각에 대해 세대내 인식만 투입한 모형(모형 1), 세대간 인식만 투입한 모형(모형 2), 두 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모형 3)을 추정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성별, 연령, 가구소득, 순자산, 학력, 이념, 기관신뢰, 거주지역을 통제하였다. 앞의 모형들에 포함되었던 통제변수 중 주관적 계층의식은 이동성 인식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주관적 계층 신념이며, 동시에 이동성 인식의 강한 예측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도 모형에 투입할 경우 이동성 인식 효과의 과잉통제가 우려되어 본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계층의식을 추가 투입한 모형에서도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첫째, 빈부갈등 인식에 대한 결과(<표 6>)를 보면, 세대내(모형 1)와 세대간(모형 2)

인식 모두 갈등 인식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며, 두 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에서도 양자의 효과가 모두 유지된다. 즉 두 차원 모두 이동성을 낙관할수록 빈부갈등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계층 갈등 지각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두 차원은 이 태도에 관한 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 6> 사회이동성 인식과 빈부갈등 인식 (순서형 로짓, 승산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대내 사회이동 인식	.811***	—	.909*
세대간 사회이동 인식	—	.778***	.823***

주: 종속변수는 5점 척도(값이 클수록 빈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통제변수(성별, 연령, 가구소득, 순자산, 학력, 이념, 기관신뢰, 거주지역) 포함. N=3,000. * $p < .05$, *** $p < .001$.

둘째, 고소득자 증세 반대 태도에 대한 결과(<표7>)는 본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다. 세대내 이동성 인식은 증세 반대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지니며, 상향이동 기대가 재분배 반대로 이어진다는POUM 가설의 예측과 일치했다. 반면 세대간 이동성 인식은 단독 투입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가(모형2), 세대내 인식을 통제한 모형 3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 즉 증세 찬성 방향의 효과를 보였다. 요컨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게 만들지만, '자식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은 오히려 증세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두 인식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지수로 측정했다면 상쇄로 인해 어느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모형2에서 세대간 인식의 총효과가0에 가까운 것 자체가 이러한 상쇄의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대간 인식에는 세대내 기대와 공유되는 성분(억제 시 증세 반대 방향)과 구조 개방성 판단이라는 고유 성분(증세 찬성 방향)이 섞여 있고, 모형3은 후자를 분리해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사회이동성 인식과 고소득자 증세 반대 태도 (순서형 로짓, 승산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대내 사회이동 인식	1.088*	—	1.152**
세대간 사회이동 인식	—	.989	.909*

주: 종속변수는 4점 척도(값이 클수록 증세에 반대). 통제변수는 <표 6>과 동일. * $p < .05$, ** $p < .01$.

셋째, 능력주의 태도에 대한 결과(<표 8>)는 기존 문헌의 예상과 어긋나는 발견을 담고 있다. 이동성 낙관이 능력주의 및 불평등 정당화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체제 정당화 계열의 예측(Day & Fiske, 2017; Shariff et al., 2016)과 달리, 세대내 이동성 인식이 높을수록 능력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 수용에 오히려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인식도 단독으로는 부(-)의 효과를 보이나, 세대내 인식을 통제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즉 능력주의 태도와 실질적으로 결합해 있는 것은 세대내 차원이며, 세대간 차원의 총효과는 세대내 인식과의 상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측정 문항의 성격과 관련된다. 본 조사의 능력주의 문항은 성과 보상의 원칙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격차와 불평등은 받아들이야 한다'는 불평등 수용을 함께 묻는다. 자신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낙관하는 사람은 노력-보상 연계를 믿되, 현재의 격차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내 낙관은 '이동 가능한 사회라면 굳이 현재의 불평등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와 양립한다. 이는 불평등과 능력주의 신념의 동행을 보고한 Mijis(2021)의 거시적 역설과는 구별되는, 개인 수준에서의 또 다른 역설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표 8> 사회이동성 인식과 능력주의 태도 (순서형 로짓, 승산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대내 사회이동 인식	.770***	—	.759***
세대간 사회이동 인식	—	.872***	1.023

주: 종속변수는 4점 척도(값이 클수록 능력주의 및 그에 따른 불평등 수용에 찬성). 통제변수는 <표 6>과 동일. *** $p < .001$.

넷째, 사회적 소수자 포용에 대한 OLS 분석 결과(<표 9>)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 준다. 단독 투입 시에는 두 인식 모두 포용과 정(+)의 관계를 갖지만, 동시 투입 모형에서 세대내 인식의 효과는 사라지고 세대간 인식의 효과만 유지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와 이주노동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이라는, 응답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타집단의 권리에 대한 포용은 개인화된 이동 기대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개방성에 대한 판단과 결합해 있는 것이다. 세대간 이동성을 낙관하는 사람은 기회구조의 개방성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사회적 경계를 넘는 포용적 태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성 인식이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된다는 국내외 연구들(문예진·이상민, 2017; Rao et al., 2022)과

도 통하는 결과인데, 본 분석은 그 연관이 개인화된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 개방성 판단의 차원에서 성립함을 보여준다.

<표 9>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 포용 (OLS)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대내 사회이동 인식	.106***	—	.040
세대간 사회이동 인식	—	.136***	.112***

주: 종속변수는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시위의 정당성과 이주노동자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평균한 지수(1~5). 통제변수는 <표 6>과 동일. *** $p < .001$.

4.5.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 능력주의 태도의 경우

세대내 이동성 인식과 능력주의 태도의 예상 외 관계를 추가로 탐색하기 위해, 이념 성향과 세대내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중도·보수 모두에서 세대내 이동을 낙관할수록 능력주의를 거부하는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그 강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층에서 부(-)의 효과가 가장 강하고 중도, 보수 순으로 약해지며, 보수층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진보층의 경우 이동성 낙관이 '개방적이어야 할 사회'라는 규범적 기대와 결합해 현존 격차의 정당화를 더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이동성 인식과 불평등 수용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태도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이념별 이질성의 기제에 대해서는 본 자료만으로 확정적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4.6. 분석의 종합

<표 10>은 두 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을 기준으로 네 가지 태도에 대한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빈부갈등 인식에 대해서는 두 차원이 같은 방향(갈등 인식 완화)으로 작동하지만, 나머지 세 태도에서는 뚜렷한 분업 혹은 대립이 관찰된다. 증세 태도에서 세대내 인식은 POUM 방향(증세 반대), 세대간 인식은 반POUM 방향(증세 찬성)으로 작동하고, 능력주의 태도는 세대내 차원과, 소수자 포용은 세대간 차원과만 결합한다. 개인화된 이동 기대는 자기 이해와 관련된 분배·보상 태도에, 구조적 개방성 판단은 타집단에 대한 포용에 각각 연결된다는 이 패턴은,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인식의 개념적 구분이 경험적으로도 실질적인 함의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한다.

<표 10> 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수	세대내 인식	세대간 인식	해석
빈부갈등 인식	갈등 인식 완화	갈등 인식 완화	이동성 낙관은 갈등 인식 완화에 기여
증세 태도(높을수록 반대)	증세 반대	증세 찬성	세대내: POUM 방향 / 세대간: 반POUM 방향
능력주의 태도(높을수록 찬성)	능력주의 거부	효과 없음	개인화된 이동 기대가 능력주의 태도와 연결
사회적 소수자 포용	효과 없음	포용도 증가	구조적 판단만 타집단 포용과 연결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세대내 차원과 세대간 차원으로 구분하고, 전국 조사 자료를 통해 두 인식의 분포, 결정요인, 태도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애 내 이동보다 자녀 세대의 상승 가능성을 더 비관하며, 이러한 세대간 비관은 특히 청년층, 고학력층, 고자산층, 그리고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두 인식의 결정요인 구조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재생산 기제와 관련된 위치 변수(학력, 순자산)와 구조 평가 변수(보수 이념)는 세대간 인식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기관신뢰의 효과 역시 세대간 차원에서 더 크다. 셋째, 두 인식은 사회적 태도와 상이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세대내 인식은 고소득자 증세 반대(POUM 방향) 및 능력주의 거부와, 세대간 인식은 증세 찬성(반POUM 방향) 및 사회적 소수자 포용과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POUM 가설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교화이다. 상향이동 기대가 재분배 반대를 낳는다는 POUM의 논리는 본 연구에서는 세대내 차원에서만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 세대의 구조적 기회에 대한 낙관은 오히려 증세 찬성과 결합하였는데, 이는 세대간 이동성 인식이 미래의 자기 세금 부담이 아니라 개방적 기회구조를 뒷받침하는 공적 투자에 대한 지지와 연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둘째, 이동성 인식과 능력주의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동성 낙관이 불평등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체제 정당화 계열의 예측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세대내 이동을 낙관할수록 능력주의적 격차 수용을 거부하는 관계가 확인되었고 그 강도는 진보층에서 가장 강했다.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언제 불평등의 수용으로, 언제 불평등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가는 문항의 측정 내용, 이념적 맥락, 그리고 이동성 인식의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적 관계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함의도 지닌다. 세대간 인식의 효과가 0에 가까웠다는 점(모형 2)은 단일 지표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동성 인식을 다루는 경험 연구는 세대내/세대간 차원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측정 수준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함의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동성 담론 설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분석 결과는 갈등 인식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두 차원의 이동성 인식 제고가 모두 유효함을 보

여주지만, 그 밖의 태도적 귀결은 차원에 따라 다르다. '노력하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개인화된 기대의 고취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반면, '자녀 세대에게 열려 있는 사회'라는 구조적 전망의 회복은 공적 투자에 대한 지지 및 사회적 포용과 동행한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책 담론이 호소해야 할 지점이 개인의 분투가 아니라 기회구조의 개방성이라면, 교육·주거·자산 형성 기회에 대한 구조적 개입이 이동성 담론의 중심에 놓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대간 비관이 청년·고학력·고자산 집단에서 두드러진다는 발견은, 이동성 비관이 단순히 박탈된 집단의 불만이 아니라 재생산 기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집단의 현실 인식임을 시사하며, 담론적 설득이 아닌 실질적 기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 비관이 완화되기 어려움을 함의한다. 부모 세대 대비 하향이동을 겪었다는 지각이 포퓰리즘 태도를 강화한다는 비교 연구의 발견(Liñeira & Rico, 2025)에 비추어 보면, 세대간 이동성 비관의 확산은 정치적 양극화와 대의제 불신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문에서 '결정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이는 엄밀히 말해 연관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이동성 인식과 태도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 역시 확정할 수 없다. 재분배나 능력주의에 대한 태도가 이동성 인식을 역으로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보 개입으로 이동성 인식을 변화시켜도 분배 선호가 변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Fehr et al., 2024)를 감안하면 관찰된 연관의 인과적 해석에는 신중해야 하며 패널 자료나 실험 설계를 통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두 이동성 인식이 각각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측정오차와 문항 표현 효과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세대내 문항의 '열심히 노력한다면'이라는 표현은 노력 귀인을 점화하여 능력주의 관련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동성 인식의 두 차원과 그 태도적 귀결의 분기를 국내 자료에서 체계적으로 보여준 시도이며, 향후의 비교 연구와 종단 연구가 여기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계봉오, 황선재. (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1-28.
- 김형연, 최진욱, 홍지은. (2025). 패널자료 분석을 이용한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 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학연구*, 31(1), 113-142.
- 문예진, 이상민. (2017). 공정성 인식과 계층이동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251-279.
- 박선경, 이내영. (2019).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사회과학연구*, 27(1), 38-69.
-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465-491.
- 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247-284.
- 장승진, 장한솔. (2020). 경제적 양극화 시대의 정치참여: 계층이동성 인식에 따른 참여 양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245-266.
-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사회*, 127, 12-59.
- 최성수, 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77-113.
- 최아영. (2022).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42(4), 326-346.
- Alesina, A., Stantcheva, S., & Teso, E. (2018).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8(2), 521-554.
- Benabou, R., & Ok, E. A.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Wiley.
- Breen, R. (Ed.). (2004). *Social Mobility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Chetty, R., Hendren, N., Kline, P., &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4), 1553-1623.
- Davidai, S., & Gilovich, T. (2015). Building a More Mobile America—One Income Quintile at a Tim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1), 60-71.
- Day, M. V., & Fiske, S. T. (2017). Movin' on Up? How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Affect Our Willingness to Defend the System.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3), 267-274.

- Drishti, E., Shkreli, Z., Zhllima, E., & Gerdoçi, B. (2023). Deprivation, Social Mobility Considerations,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33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65(3), 511–550.
-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larendon Press.
- Evans, M. D. R., & Kelley, J. (2004). Subjective Social Location: Data from 21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3–38.
- Featherman, D. L., & Hauser, R. M. (1978). *Opportunity and Change*. Academic Press.
- Fehr, D., Müller, D., & Preuss, M. (2024). Social Mobility Perceptions and Inequality Accepta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21, 366–384.
- Kelley, J., & Evans, M. D. R. (1995). Class and Class Conflict in Six Western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2), 157–178.
- Kelley, S. M. C., & Kelley, C. G. E. (2009).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In M. Haller, R. Jowell, & T. W. Smith (Eds.),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Charting the Globe* (pp. 106–125). Routledge.
- Liñeira, R., & Rico, G. (2025).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Populist Attitudes. *Social Science Quarterly*, 106(3), Article e70019.
- Lipset, S. M., & Bendix, R.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js, J. J. B. (2021). The Paradox of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and Belief in Meritocracy Go Hand in Hand. *Socio-Economic Review*, 19(1), 7–35.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 Präg, P., & Gugushvili, A. (2021). Subjective Social Mobility and Health in Germany. *European Societies*, 23(4), 464–486.
- Rao, T.-T., Yang, S.-L., Yu, F., Xu, B.-X., & Wei, J. (2022). Perception of Class Mobil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Prosocial Behaviour.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88–102.
- Shariff, A. F., Wiwad, D., & Akinin, L. B. (2016). Income Mobility Breeds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Cross-N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3), 373–380.



IFS 페이퍼 2026-01 (Vol.2)

사회이동성 인식의 구조와 사회적 태도에 대한 합의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저자	정인관(inkwan82@ss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2893
팩스	02-882-2894
홈페이지	ifs.snu.ac.kr

이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견이며 국가미래전략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SSN 3058-5848

